



재단
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 활동지원실
CHUNG-NAM YOUTH DEVELOPMENT CENTER

목 차

I. 연구개요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응답자 특성 	
II. 주요결과 요약	5
III. 충청남도 전체 조사 결과 분석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가시간 실태 및 요구 조사 분석 결과 2. 청소년관련 시설 이용 횟수 및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및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4. 청소년활동 욕구 조사 분석 결과 5. 가치관 조사 분석 결과 	
IV. 시·군별 조사 결과 분석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안시 2. 공주시 3. 보령시 4. 아산시 5. 서산시 6. 논산시 7. 계룡시 8. 금산군 9. 연기군 10. 부여군 11. 서천군 12. 청양군 13. 홍성군 14. 예산군 15. 태안군 16. 당진군 	

2010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발행인	구본총
발행처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활동지원실
주소	(331-960)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90번지 진암빌딩 4층
전화	041)554-2000(내선 3)
발행일	2010. 12.
홈페이지	http://cnyouth.or.kr

이 책은 재)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재)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I. 연구 개요

1. 연구목적

-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현황 및 욕구파악을 통한 청소년활동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마련과 정보제공

2. 연구내용

- 충청남도 청소년의 여가활동,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실태 및 욕구 파악

3. 연구 방법 및 범위

- 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
- 충청남도내 16개 시·군 청소년 인구 비례에 근거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
-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청소년 5,790명 중 부적절한 응답자 제외. 총 5,566명(남 48.6%, 여 51.4%)을 조사
-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PASW Statistics 18.0를 활용하여 분석. 응답의 빈도수를 기초로 교차분석을 주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활동의 실태 및 요구를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의 장기적인 수요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설문 구성 : 여가시간 및 실태, 청소년관련 시설 이용 횟수 및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및 만족도, 청소년활동 욕구, 가치관 조사

4. 응답자 특성

- 학교지역 및 성별 교차표

(단위 : 명)

구 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전체		
전 체	895	417	415	504	423	402	238	218	226	226	237	230	349	322	232	232	5566		
성 별	남자	459	254	223	245	187	209	101	90	143	108	62	122	173	76	115	136	2703	
	여자	436	163	192	259	236	193	137	128	83	118	175	108	176	246	117	96	2863	
교 급	중 학 교	남자	246	143	126	112	96	68	59	60	59	49	26	60	113	52	115	55	1439
		여자	215	69	120	124	105	129	61	60	0	60	91	57	57	114	117	63	1442
		전체	461	212	246	236	201	197	120	120	59	109	117	117	170	166	232	118	2881
	고 등 학 교	남자	213	111	97	133	91	141	42	30	84	59	36	62	60	24	0	81	1264
		여자	221	94	72	135	131	64	76	68	83	58	84	51	119	132	0	33	1421
		전체	434	205	169	268	222	205	118	98	167	117	120	113	179	156	0	114	2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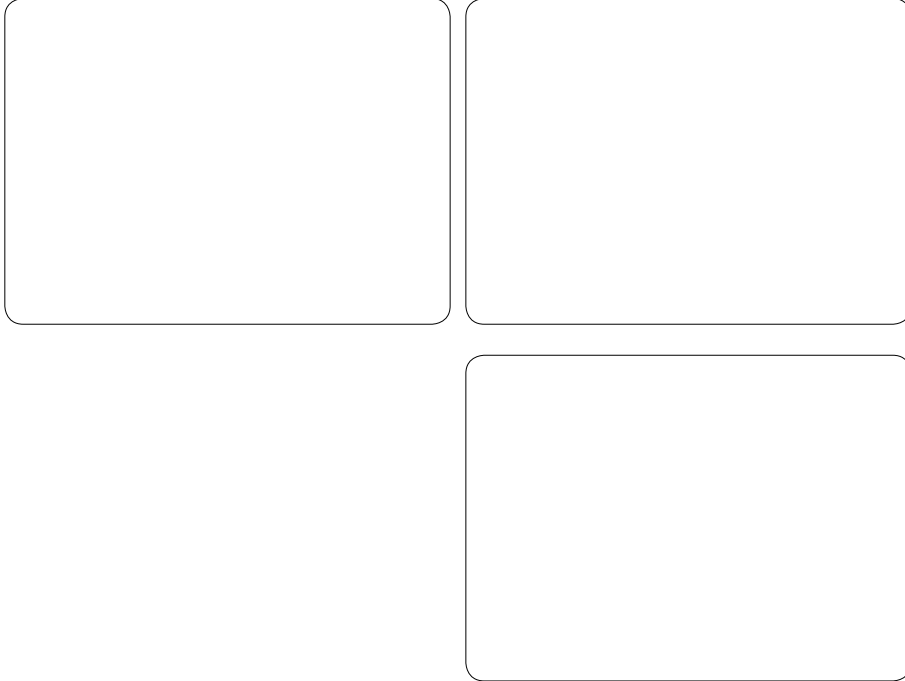
II. 주요 결과 요약

<p>1. 청소년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활동 영역</p>	<p>24p 참조</p>
<p>‘문화예술관련 활동’, ‘스포츠극기관련 활동’, ‘직업능력관련 활동’, ‘봉사협력관련 활동’ 순</p>	
<p>2. 삶의 중요도(가치관)</p>	<p>25p 참조</p>
<p>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정’, ‘건강’, ‘직업’, ‘진학’, ‘동성친구’ 순 관심이 덜한 가치영역으로 ‘종교’, ‘이웃·지역사회’, ‘권력’, ‘이성친구’ 순</p>	
<p>3. 행복지수, 청소년활동 여건지수</p>	<p>26p 참조</p>
<p>충남도 청소년들이 행복지수는 일반적인 수준이며, 지역 청소년활동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p>	
<p>4. 여가시간 활용과 횟수</p>	<p>8p 참조</p>
<p>도내 주중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을 주로 ‘미디어이용’, ‘휴식’, ‘공부’에 참여 반면, ‘문화활동’, ‘봉사활동’, ‘여행’, ‘종교활동’ 등은 소극적 참여</p> <p>놀토일(학교휴무토요일) 여가시간에 주로 ‘미디어이용’, ‘휴식’, ‘공부’에 참여 반면, ‘문화활동’, ‘봉사활동’, ‘여행’, ‘종교활동’ 등은 소극적 참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data-bbox="182 1263 704 164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width: 35%; height: 197px;"></div> <div data-bbox="723 1263 1245 164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width: 35%; height: 197px;"></div> </div>	

5. 여가시간 동반자

8p 참조

여가시간에 함께 하는 사람은 주로 '가족', '동성친구' 또는 '혼자' 순
반면 '이성친구'와 '선후배'와는 함께하는 경우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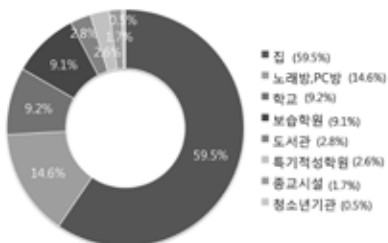


6.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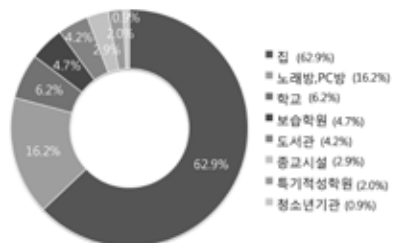
10p 참조

주중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주로 '집'과 '노래방 및 PC방'
놀토(학교휴무토요일)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주로 '집'과 '노래방 및 PC방'
다음으로 '학교', '보습학원' 순
반면 '청소년기관', '종교시설', '도서관', '특기적성학원'은 매우 미비한 수준에서 이용

주중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



놀토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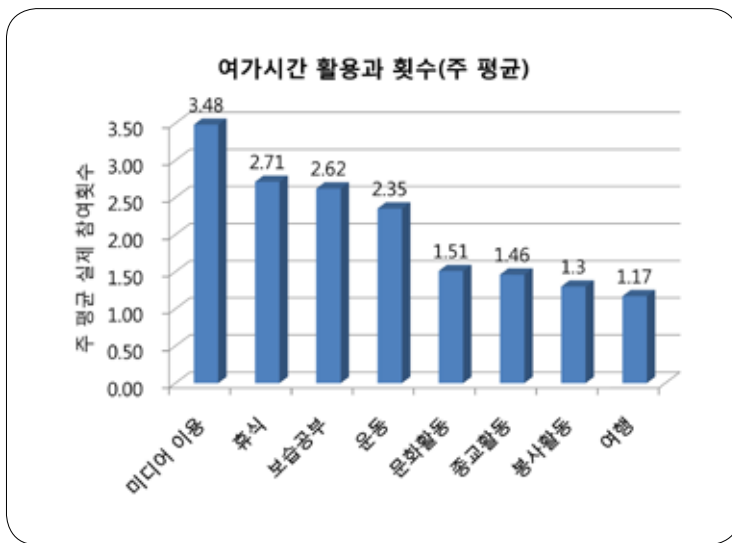
<p>7. 최근 1년 이용 시설 횟수</p>	<p>13p 참조</p>
<p>‘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 그 다음으로 ‘종교시설’,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순 “청소년수련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이용실적 미미”</p>	
<p>8. 지역에서 한 달에 1번 이상 이용하는 시설</p>	<p>14p 참조</p>
<p>‘PC방’, ‘노래방’, ‘영화관’, ‘독서실’ 순 “청소년수련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이용실적 미미”</p>	
<p>9. 최근 1년 시설 청소년활동 영역 참여 횟수</p>	<p>15p 참조</p>
<p>‘동아리관련 활동’, ‘문화·예술관련 활동’, ‘스포츠·극기관련 활동’ 활발한 참여 ‘청소년교류관련 활동’, ‘직업체험관련 활동’ 소극적 참여</p>	
<p>10. 청소년활동정보 취득 경로</p>	<p>15p 참조</p>
<p>‘학교·선생님’, ‘친구, 선·후배’, ‘인터넷·매스컴·홍보지’, ‘가족’, ‘청소년기관(지도사)’ 순</p>	
<p>11. 청소년활동 불참 이유</p>	<p>17p 참조</p>
<p>‘청소년프로그램 부재’, ‘청소년이용시설 부족’, ‘공부로 인한 시간부족’</p>	
<p>12. 청소년활동 영역 중 가장 하고 싶은 활동</p>	<p>19p 참조</p>
<p>‘문화예술관련 활동’은 ‘영화감상’, ‘연극뮤지컬관람’, ‘음악공연관람’, ‘악기연주’, ‘사진영화촬영’ 순 ‘과학·정보관련 활동’은 ‘동식물곤충키우기’, ‘천문기상관측’, ‘인터넷상거래’ 순 ‘스포츠·극기관련 활동’은 ‘축구’, ‘야영활동’, ‘B-boy’, ‘요가’, ‘수영’ 순 ‘봉사협력관련 활동’은 ‘해외봉사’, ‘노인 장애인돕기’, ‘일일차집’, ‘농촌일손돕기’ 순 ‘청소년교류관련 활동’은 ‘배낭여행’, ‘홈스테이활동’, ‘도농간교활동’, ‘국가간교류활동’ 순 ‘동아리 유형’은 ‘학교내동아리’, ‘청소년단체동아리’, ‘인터넷동아리’, ‘수련시설동아리’ 순 ‘직업능력관련 활동’은 ‘직업체험활동’, ‘진로직업탐색활동’, ‘대학탐방활동’, ‘청소년창업활동’ 순 ‘환경기타활동’은 ‘갯벌체험활동’, ‘건강먹거리체험활동’, ‘숲체험활동’, ‘건강지킴이활동’ 순</p>	
<p>13. 청소년활동의 목적</p>	<p>24p 참조</p>
<p>‘내 삶의 흥미발견’, ‘직업능력개발(진로)’, ‘진학 및 취업에 도움’, ‘또래집단 관계유지’로 참여하 는 반면 ‘학교공부에 도움’을 목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음</p>	

III. 충청남도 전체 조사 결과 분석

1. 여가시간 실태 및 요구 조사 분석 결과

□ 여가시간 활용과 횟수(주 평균)¹⁾

충남 청소년은 본 조사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을 제외한 자신들만의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 순으로는 ‘별로 하는 일 없이 휴식’, ‘보습공부’, ‘운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여행’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경험을 가져다주는 ‘여행’은 가장 적게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경우 홀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미디어이용’, ‘휴식’, ‘공부’에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남녀간의 차이를 볼 때, 대부분은 차이가 없이 나타났으나, 운동에 있어서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급별 차이에 있어서는 여가활동의 많은 영역에

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습공부’와 ‘미디어 이용’, ‘운동’에 있어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은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집에서의 휴식’의 영역을 제외한 전 여가활동 영역에서 중학생에 비하여 여가시간 활동이 빈약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통해 볼 때, 시사점은 고등학생을 위한 적절한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여건마련 및 지원 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순위²⁾

○ 평 일

충남 청소년들은 주중 평일에 ‘동성친구’와 가장 많이 함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 순으로는 ‘혼자’, ‘가족’순이었다. 반면, ‘이성친구’, ‘선후배’와 함께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기의 친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며,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홀로 지내고 있음에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남녀간의 차이를 볼 때, 여자 청소년의 경우 ‘혼

1) 실제적인 주 평균 횟수

2) 1 - 5위까지의 순위를 소수점 까지 표시(1에 가까울수록 여가시간 우선순위 동반자)

자', '가족'과 지내는 경우가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친구'와 함께 하는 경우가 여자 청소년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교급별 차이를 볼 때, 중학생은 '가족', '혼자' 있는 경우가 고등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하여 '친구'와 더욱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좀 더 세밀한 접근을 통해 볼 때, 고등학생 남자 청소년의 경우 '친구'와 함께 있는 비율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여자청소년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 말

충남 청소년들은 주말에 '가족'과 주로 함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 순으로는 '친구', '홀로' 순이었다. 반면, '이성친구', '선후배'와 함께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주말의 경우 '가족'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볼 때, 부모와 함께 할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간의 차이를 볼 때,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 지내는 경우가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친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높게 조사되었다. 교급별 차이를 볼 때,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있기 보다는 동성친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학생 청소년과,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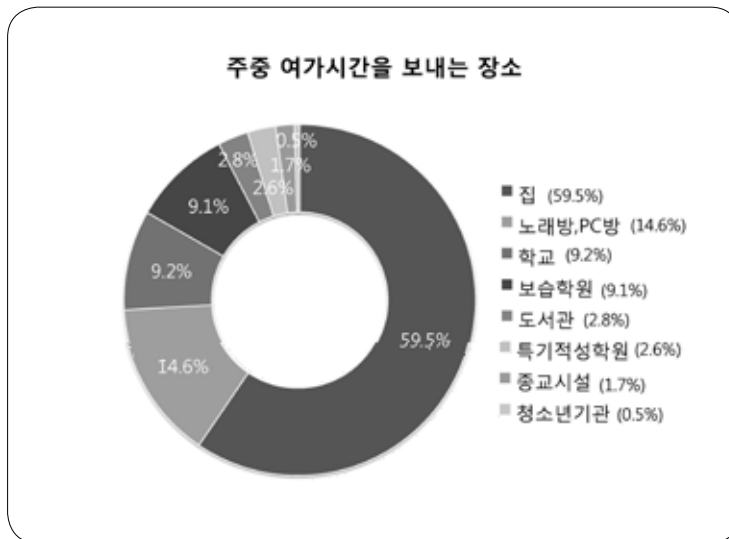
○ 방 학

충남 청소년들은 방학 중에는 '가족'과 주로 함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 순으로는 '홀로', '친구' 순이었다. 반면, '이성친구', '선후배'와 보내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방학 중에 청소년들은 주로 '가족'과 함께 있거나 '혼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

사하는 바는 방학 중에 가정과 부모와 적절하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간의 차이를 볼 때,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 지내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친구'와 함께하는 비율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 차이를 볼 때,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방학중에 가족보다는 동성친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청남도 청소년의 여가시간 동반자에 있어서, 학기 중 평일에는 '친구', 주말과 방학중에는 '가족'과 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반면, '이성친구', '선후배'를 동반자로 여기고 함께하는 경우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 여가시간 활동에 있어서, 가정과 친구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가시간에 있어서 '가정'과 '친구'가 순기능 및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청소년성장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

충남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있어서, '집'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 '노래방', 'PC방', '학교', '보습학원'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청소년기관', '종교시설', '도서관', '특기적성학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충남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소가 사회적으로 청소년위해시설로 판단되는 '노래방, PC방' 이외에는 마땅히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여가시간 활용장소를 크게 '집', '학교 및 학원', '노래방, PC방'로 구분된다. 이는 가정의 고유기능과 학교의 고유기능을 여가시간에 제외한다면, 충청남도 적절한 청소년의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관의 경우 존재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를 크게 '집', '학교 및 학원', '노래방, PC방'로 구분된다. 이는 가정의 고유기능과 학교의 고유기능을 여가시간에 제외한다면, 충청남도 적절한 청소년의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관의 경우 존재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녀간의 차이를 볼 때, 남자 청소년들이 '노래방, PC방'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노래방, PC방'은 남자 청소년

들의 여가시간 활용 전유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집'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 지내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친구'와 함께하는 비율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 차이를 볼 때,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중학생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노래방, PC방’ 더욱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집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이한 것으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보습학원’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중학생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서관’과 ‘학교’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가시간의 만족도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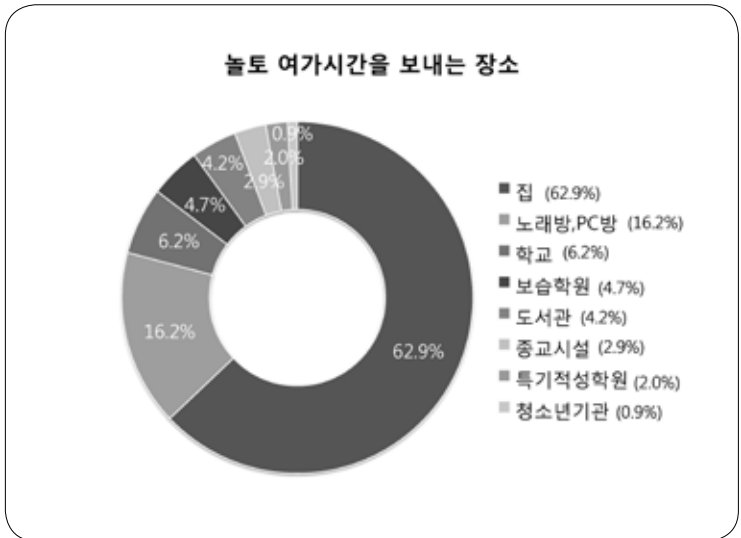
충남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인 수준이며,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의 차이 및 교급별 차이도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치적으로 볼 때, 남자 중학생이 고등학생 및 여자 중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여가시간 활용이 기본적인 인 권이라는 인식에 대한 정리도 안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여가시간에 대한 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대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인식과 척도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된다.

<표1. 여가시간 만족도>

구 분		만족도	
전 체		2.94	
성 별	남자	2.90	
	여자	2.97	
교 급	중학교	남자	2.75
		여자	2.87
		전체	2.81
	고등학교	남자	3.08
		여자	3.08
		전체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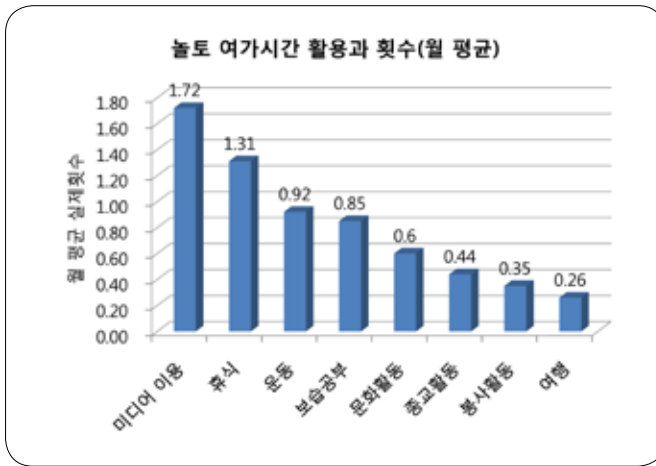
□ 학교수업이 없는 토요일(놀토)을 보내는 장소

충남 청소년들은 학교에 등교 하지 않는 토요일에 주로 이용하는 여가활동장소로 ‘집’을 대부분 응답하고 있으며, 그 다음 이용시설로 ‘노래방, PC방’을 들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이 ‘학교’, ‘보습학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간의 차이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노래방, PC방’, ‘학교’를 여자 청소년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급별 차이에 있어서, 중학생이 ‘집’, ‘종교시설’을 고등학생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은 ‘도서관’, ‘학교’를 중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이용이 상당히 높게 조사되었다.



3) 5점 만점. 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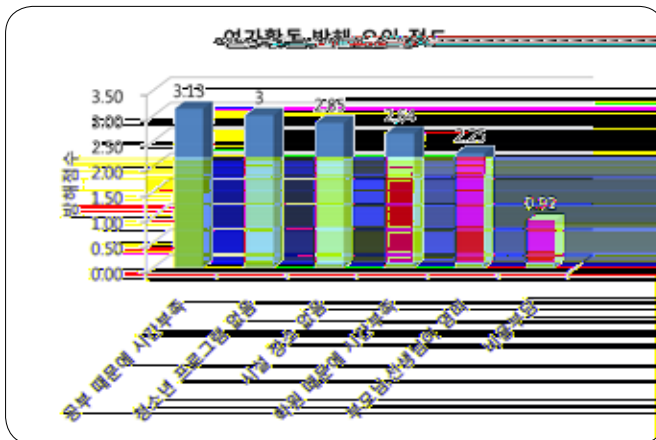
□ 학교수업이 없는 토요일(놀토) 여가시간 활용과 횟수(월 평균)⁴⁾



충남지역 청소년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에 주로 하는 주요활동 및 내용은 '미디어이용'→'휴식'→'운동'→'보습공부'→'문화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봉사활동', '여행', '종교활동'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간의 차이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운동'이 높게, 여자 청소년의 경우 '휴식', '문화활동'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급별 차이는 대부분 없었으나, '여행'에 있어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가활동 방해요인 정도⁵⁾

충남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여가활동 방해 요인으로 가장 큰 것은 '공부 때문에 시간부족'으로 답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프로그램', '시설 및 장소부족', '비용부담', '학원 때문에 시간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함께할 사람 없음', '부모·교사 염려'에 대해서는 방해요인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해요인중 '공부 때문에 시간부족', '학원 때문에 시간부족'은 비슷한 여가활동 방해요인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방해의 가장 큰 요인은 '고등학교입학' 및 '대학입학'과 관련된 '입시'이며, 다음 요인으로 여가시간활용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의 차이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들이 '청소년프로그램', '시설 및 장소부족'을 남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급별 차이에 있어서,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청소년프로그램', '시설 및 장소부족'을 여가시간 방해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청소년시설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이한 점으로는 중학생 청소년들은 '학원'을 방해요인으로, 고등학생 청소년은 '공부(입시)'를 좀 더 크게 방해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실제적인 월 평균 횟수

5) 5점 만점. 5점에 가까울수록 방해정도가 심함

2. 청소년관련 시설 이용 횟수 및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최근 1년간 시설 이용한 횟수(학교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제외)⁶⁾

충남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시설에 있어서,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종교시설’,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로 조사되었다. 반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프라 부족문제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의 경우 지역내 이용고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 되어 진다. 본 조사에 있어서 세부 시설이용을 검토한 결과, ‘도서관’, ‘종교시설’에 대한 청소년이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용하는 청소년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이 극명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이용청소년의 경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보편적 청소년이용의 조사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과 ‘종교시설’의 이용은 현 조사수치보다 낮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녀간의 차이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체육시설’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종교시설’, ‘도서관’ 이용이 높게 조사되었다. 주목할 사항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 이용이 적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는 특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교급별 차이에 있어서, 고등학생의 경우 ‘문화예술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중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생의 경우 ‘종교시설’ 이용에 있어서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1년간 이용한 시설의 만족도⁷⁾

충남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종교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사회복지’ 시설이 다소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청소년수련시설은 대부분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일반적인 만족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세밀하게 분석하자면, 수련시설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지원센터’, ‘유스호스텔’ 보다는 약간 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최근 1년간 시설을 이용한 실제적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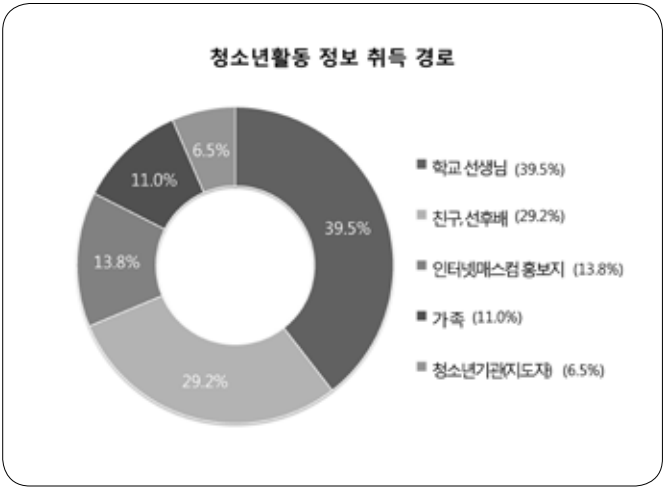
7) 5점 만점. 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음



교급 별로는 중학생이 스포츠.극기관련활동(1.56회) 영역에서 고등학생은 동아리관련활동(2.10회) 영역에서 가장 높은 참여 빈도를 나타내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1세기 글로벌시대에서 청소년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제적 감각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인 교류관련 활동영역의 경험 빈도(0.30회)가 여타활동에 비해서 극히 저조한 점은 우려스러운 결과로 평가되며 충청남도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의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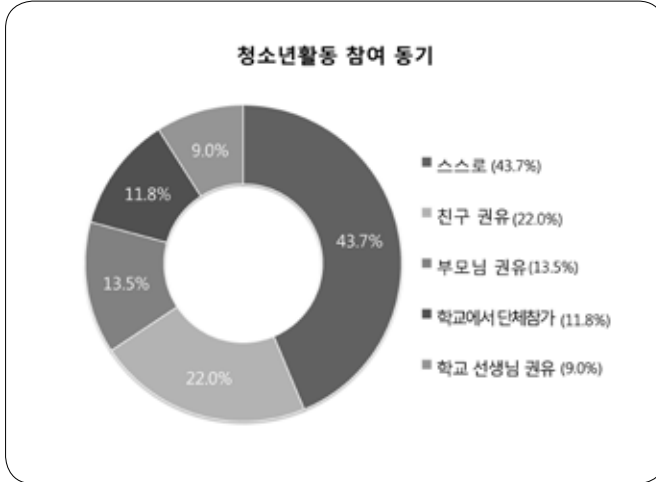
□ 청소년활동 정보 취득 경로[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에서 학교, 선생님(39.5%)> 친구, 선.후배(29.2%)> 인터넷.매스컴, 홍보지(13.8%)> 가족(11.0%)> 청소년기관(지도사)(6.5%)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취득 경로의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정보취득 경로의 순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동일하나 중학생의 경우 가족에 의한 취득이 13.8%인 반면에 고등학교는 8.0%로 나타나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가족의존적인 정보취득을, 그 반면에 고등학생들은 친구, 선.후배를 통한 정보 취득이 32.0%, 중학생은 26.6%로 나타나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과는 달리 가족 보다는 친구선후배를 통한 정보취득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정보취득경로와 관련하여 유의하여 볼 것은 학교와 선생님을 통한 정보취득율이 가장 높고 청소년기관과 지도사를 통한 정보취득률이 가장 낮다는 사실인데 이는 학교의 청소년활동이 교사들과 밀접하게 연계된 청소년단체 활동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과 지역사회 청소년기관과 학교와의 네트워크이 활성화되어있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청소년기관과 지도사들의 직접적 홍보활동이 미흡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도 보는데, 학교대상 지역사회 청소년시설과 기관의 직접적 홍보가 절실함을 나타내준다.



□ 청소년활동 참여 동기[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청소년활동 참여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서 스스로(43.7%)>친구 권유(22.0%)>부모님 권유(13.5%)> 학교에서 단체참가(11.8%)> 학교선생님의 권유(9.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차이와 관련,



남학생과 여학생 공히 순위는 전체 순위와 동일하나 참여 동기의 1순위인 '스스로'의 비율이 여학생이 46.6%로 남학생 40.4%보다 6.2%나 높게 나타나서 여학생의 자발적 참여 동기가 남학생 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교급별 차이와 관련하여서 '스스로' 참여 동기가 고등학생이 49.9%로 중학생의 37.9%보다 12%나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참여 동기가 중학생보다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부모님의 권유' 참여 동기에서는 중학생이 16.6%로 고등학생의 10.1% 보다

5.5% 높게 나타나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부모 의존적 동기가 강함을 나타내었다. 청소년활동 참여 동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향후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참여율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더불어서 현재의 학교단체 수련활동이 자발적 동기에 의한 소규모 집단 활동으로 청소년활동이 전향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나타내준다고 본다.

□ 청소년활동의 만족도[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¹⁰⁾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5점 척도기준으로 3.40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39의 만족도를, 여학생이 3.41로 나타나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43의 만족도를, 고등학생이 3.36의 만족도를 나타내어 중학생의 만족도가 0.07%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교급별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충남청소년활동의 만족도는 보통의 수준으로 만족 및 매우 만족의 수준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는 본 연구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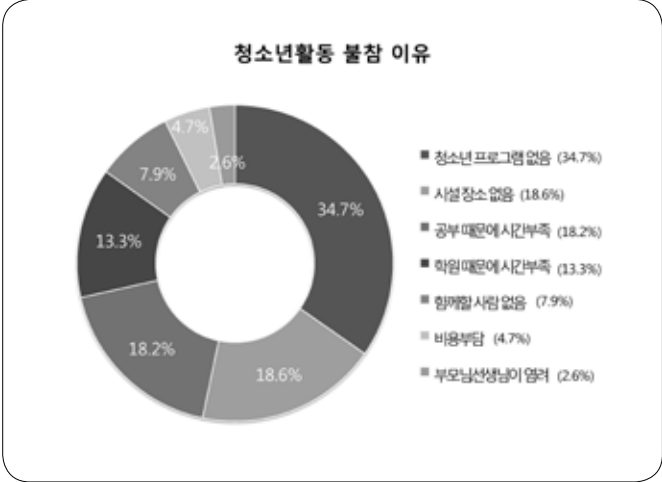
<표2. 청소년활동 만족도>

구 분		만족도	
전 체		3.40	
성 별	남자	3.39	
	여자	3.41	
교 급	중학교	남자	3.42
		여자	3.44
		전체	3.43
	고등학교	남자	3.36
		여자	3.37
		전체	3.36

10) 5점 만점. 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활동 불참 이유[청소년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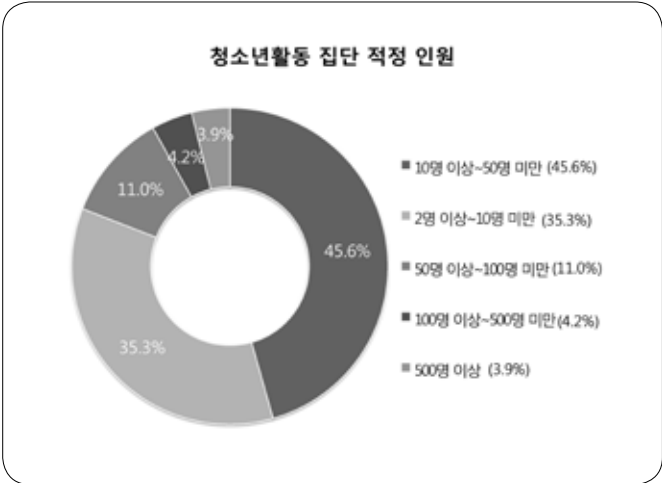
청소년활동의 불참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불참의 이유는 청소년프로그램 없음(34.7%)>시설, 장소 없음(18.6%)> 공부 때문에 시간부족(18.2%)>학원 때문에 시간부족(13.3%)>함께할 사람 없음(7.9%)>비용부담(4.7%)> 부모님, 선생님이 염려(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와 관련, 남학생과 여학생 공히 순위는 전체 순위와 각각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나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교급 별 차이와 관련서 중고등학생 공히 불참 이유 순위와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교급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 불참이유에 대한 설문결과에서 의미 있게 도출된 점은 청소년활동의 외적요인이 아닌,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없고 시설과 장소가 없음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청소년활동의 본질인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 제고 그리고 이를 수용하고 풀어내는 시설의 확충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안 모색을 요구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4. 청소년활동 욕구 조사 분석 결과

□ 청소년활동 집단구성 적정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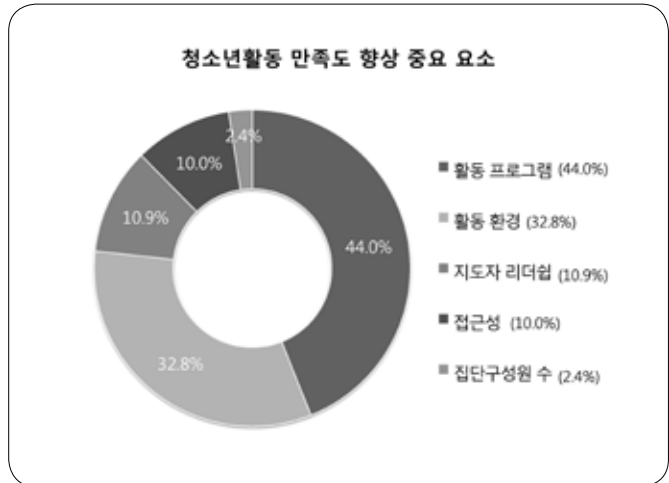
청소년활동 집단구성 적정인원을 청소년의 관점에서 조사하기 위한 설문에서 10명이상~50명 미만(45.6%)>2명이상~10명미만(35.3%)>50명이상~100명미만(11.0%)>100명이상~500명미만(4.2%)>500명이상(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와 비율 기준으로 성별 및 교급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 없으며 전체집계 순위 및 비율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집단구성 적정인원 설문결과에서 의미 있게 도출된 점은 청소년활동의 집단구성이 10명 내외 또는 최대한 50명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대집단 중심 청소년활동에서



특수 목적의 소집단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의 대상의 규모가 변화되고 더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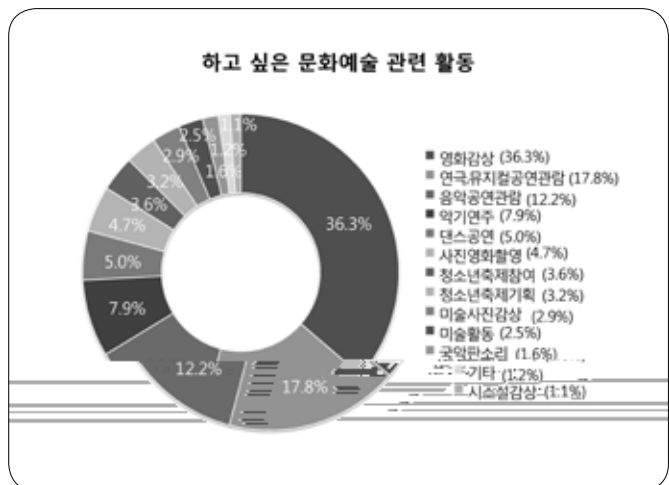
□ 청소년활동 만족도 향상 중요 요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냐는 설문에서 활동프로그램(44.0%)>활동환경(32.8%)>지도자 리더쉽(10.9%)>접근성(10.0%)>집단 구성원 수(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와 비율 기준으로 성별 및 교급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 없으며 전체집계 순위 및 비율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요요소 설문결과에서 의미 있게 도출된 점은 청소년 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사들의 프로그램 개발능력과 프로그램 운영능력이 가장 우선적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그램개발과 운영능력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연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 문화·예술 관련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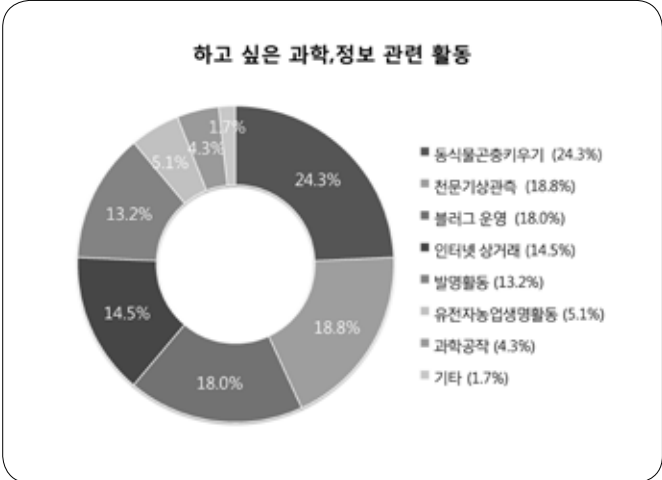
문화·예술 관련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 관한 설문에서는 영화감상(36.3%)>연극뮤지컬공연 관람(17.8%)>음악공연관람(12.2%)>악기연주(7.9%)>댄스공연(5.0%)>사진영화촬영(4.7%)> 청소년축제참여(3.6%)>청소년축제기획(3.2%)>미술 사진감상(2.9%)>미술활동(2.5%)>국악판소리(1.6%)>기타(1.2%)>시·소설 감상(1.1%)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차이와 관련, 5순위까지의 순위와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남학생의 경우 영화감상(45.3%)>음악공연관람(13.2%)>악기연주(9.2%)>연극뮤지컬 공연관람(8.9%)>사진영화촬영(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영화감상(27.8%)>연극뮤지컬공연관람(26.2%)>음악공연관람(11.2%)>댄스공연(7.1%)>악기연주(6.6%)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영화



감상을 특별히 선호(45.3%)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영화감상과 연극뮤지컬공연관람을 골고루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댄스활동(7.1%, 4순위)을 선호하는 반면 남학생은 댄스활동(2.8%, 8순위) 대신에 사진 영화촬영활동(5.2%, 5순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 별 차이와 관련하여서 5순위까지의 순위와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극뮤지컬공연관람’의 경우 고등학생(22.6%)의 선호도가 중학생(13.3%)에 비해 9.3%나 높게 나타난 점과, ‘영화감상’의 경우 중학생(39.1%)의 선호도가 고등학생(33.4%)에 비해 5.7%나 높게 나타난 점이 의미 있는 차이점으로 부각되었다.

□ 과학·정보 관련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과학·정보 관련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동·식물·곤충 키우기(24.3%)>천문기상관측(18.8%)>블로그 운영(18.0%)>인터넷상거래(14.5%)>발명활동(13.2%)>유전자농업생명활동(5.1%)>과학 공작(4.3%)>기타(1.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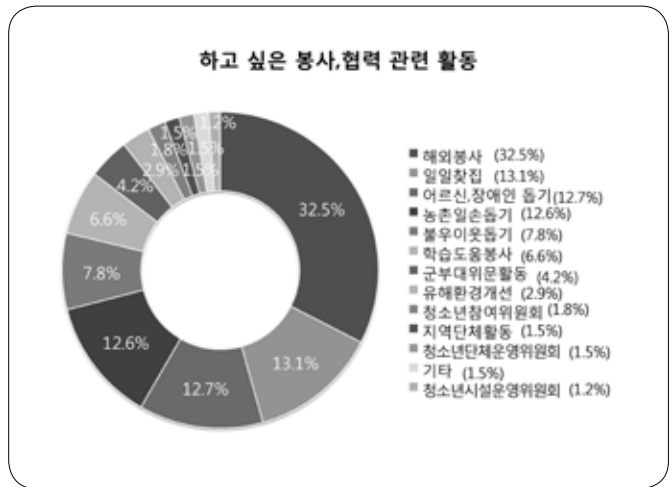
성별차이와 관련, 5순위까지의 순위와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남학생의 경우 동·식물·곤충 키우기(24.1%)>천문기상관측(15.9%)> 발명활동(17.1%)>블로그 운영(15.6%)>인터넷상거래(15.0%)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동·식물·곤충키우기(24.5%)>천문기상관측(21.5%)> 블로그 운영(20.4%)>인터넷상거래(14.0%)> 발명활동(9.6%)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발명활동(3순위, 17.1%)’을 비교적 선호하는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블러 운영(3순위, 20.4%)’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차이와 관련해서 5순위까지의 순위와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중학생은 동·식물·곤충 키우기(27.9%)>블로그 운영(17.7%)>천문기상관측(16.4%)>발명활동(14.9%)>인터넷상거래(12.0%)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천문기상관측(21.4%)> 동식물곤충 키우기(20.5%)>블로그 운영(18.4%)>인터넷상거래(17.1%)>발명활동(11.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5순위의 선호도 안에 들어온 활동 내용은 동일하나 중학생이 1순위로 ‘동·식물·곤충 키우기(27.9%)’로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은 ‘천문기상관측(21.4%)’을 선호했다. 2순위로 중학생이 ‘블로그 운영(18.4%)’으로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은 ‘동·식물·곤충 키우기(20.5%)’를 선호하는 등 순위와 비율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 봉사·협력 관련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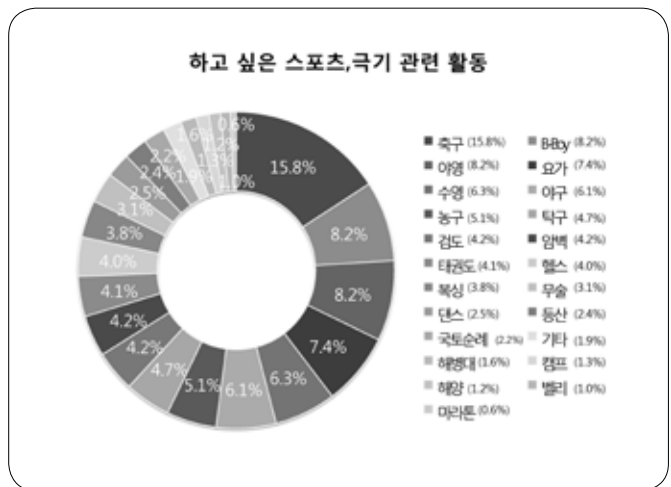
봉사·협력 관련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설문에서는 해외봉사(32.5%)>일일찾집(13.1%)>어르신장애인 돕기(12.7%)>농촌일손 돕기(12.6%)>불우이웃돕기(7.8%)>학습도움봉사(6.6%)>군부대위문활동(4.2%)>유해환경개선(2.9%)>청소년참여위원회(1.8%)>청소년단체운영위원

회(1.5%)>지역단체활동 (1.5%)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차이와 관련, 5순위까지의 순위와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남학생의 경우 해외봉사(29.1%)>농촌일손돕기(15.6%)>어르신장애인 돕기(13.7%)>불우이웃돕기(9.1%)>일일찾집(8.6%)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해외봉사(35.6%)>일일찾집(17.4%)>어르신장애인돕기(11.7%)>농촌일손 돕기(9.8%)>불우이웃돕기(6.6%)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농촌일손돕기(2순위, 15.6%)'를 비교적 선호하는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일일찾집(2순위, 17.4%)'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 별 차이와 관련하여서 5순위까지의 순위와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중학생은 해외봉사(27.4%)>농촌일손돕기(14.3%)>어르신장애인 돕기(13.8%)>일일찾집(12.3%)>불우이웃돕기(10.0%)순으로, 고등학생은 해외봉사(37.9%)>일일 찾집(14.0%)>어르신장애인 돕기(11.5%)>농촌일손돕기(10.8%)>학습도움봉사(6.6%)순으로 응답하였다. 동일한 1순위가지만 고등학생이 '해외봉사(37.9%)' 선호도가 중학생의 선호도(27.4%)보다 10.5%나 높게 나타난 점, 중학생과는 달리 '학습도움봉사'가 5순위 선호도 안에 포함된 점 등이 의미 있는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 스포츠·극기 관련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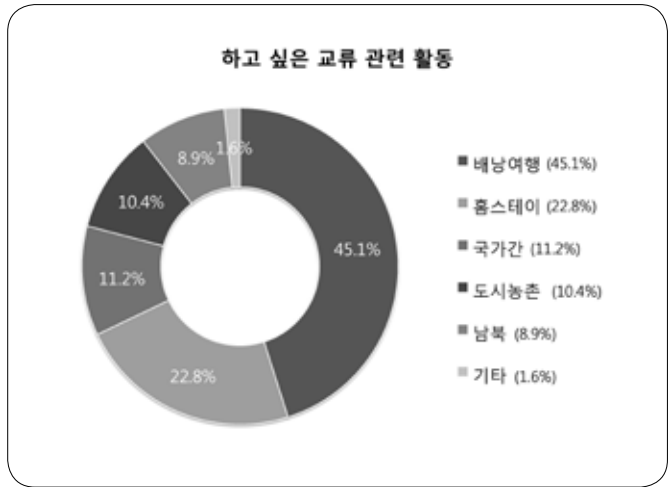
스포츠·극기 관련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설문에서는 축구(15.8%)>야영(8.2%), B-Boy(8.2%)>요가(7.4%)>수영(6.9%)>야구(6.1%)>농구(5.1%)>탁구(4.7%)>검도(4.2%), 암벽(4.2%)>태권도(4.1%)>헬스(4.0%)복싱(3.8%)>무술(3.1%)>댄스(2.5%)>등산(2.4%)>국토순례(2.2%)>해병대(1.6%)>캠프(1.3%)>해양(1.2%)>밸리(1.0%)>마라톤(0.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차이와 관련, 5순위까지의 순위와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남학생의 경우 축구(15.8%)>야구(6.1%)>농구(5.1%)>탁구(4.7%)>B Boy(8.2%)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요가(7.4%)>야영(8.2%)>B-Boy(8.2%)>수영(6.9%)>축구(15.8%)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비교적 구기종목을 선호하는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요가, 야



영, B Boy와 수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 별 차이와 관련하여서 5순위까지의 순위와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중학생은 축구(15.8%)>야구(6.1%)>농구(5.1%)>탁구(4.7%)>B- Boy(8.2%) 순으로, 고등학생은 축구(15.8%)>요가(7.4%)>B-Boy(8.2%)>야영(8.2%)>수영(6.9%)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생은 구기 종목을, 고등학생은 구기종목 중 특히 축구를 선호하며 이외의 활동 요가, B-Boy, 야영과 수영을 골고루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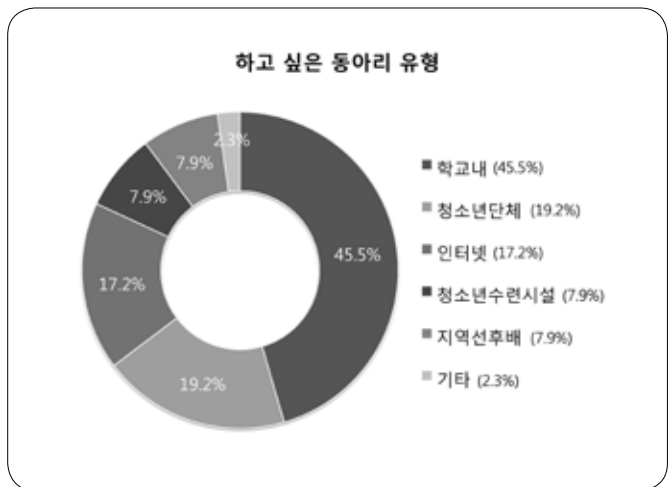
□ 교류관련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교류관련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조사에서 배낭여행(45.1%)>홈스테이(22.8%)>국가간(11.2%)>도시 농촌(10.4%)>남북(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일한 1순위에서도 남학생의 경우 배낭여행의 선호도(49.1%)가 여학생의 선호도(41.3%)보다 7.8%나 높게 나타난 점, 동일 2순위에서도 여학생의 홈스테이 선호도(27.9%)가 남학생의 선호도(17.3%)보다 10.6%나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는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차이와 관련해서 중고생 모두 배낭여행과 홈스테이를 1위와 2위로 선호하는 가운데, 중학생의 경우 도시농촌 간 교류(중학생 12.3%, 고등학생 8.5%)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국가 간 교류(고등학생 12.2%, 중학생 10.4%)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아리 관련 가장 하고 싶은 동아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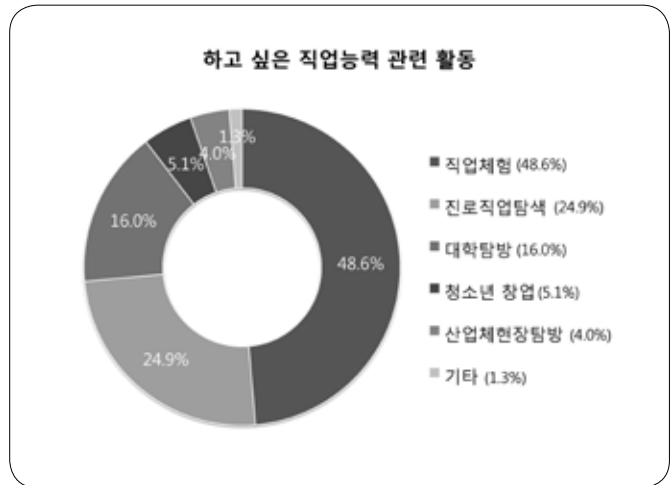
동아리 관련 가장 하고 싶은 동아리 유형에 대한 설문에서는 학교 내(45.5%)>청소년단체(19.2%)>인터넷(17.2%)>청소년수련시설(7.9%), 지역선후배(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 분석에서는 남 여학생 모두 학교 내 동아리 활동을 1위로 선호하는 가운데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 동아리(2위, 19.7%)를, 여학생의 경우 청소년단체 동아리(2위, 23.9%)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학교 내 동아



리 활동을 1위로 선호하는 가운데 중학생의 경우 인터넷 동아리(2위, 21.9%)를 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단체 동아리(2위, 22.8%)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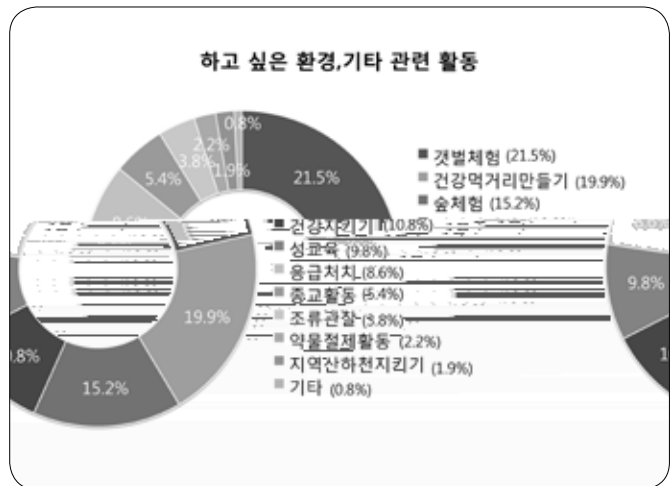
□ 직업능력 관련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직업능력 관련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설문에서는 직업체험(48.6%)>진로직업탐색(24.9%)>대학탐방(16.0%)>청소년창업(5.1%)>산업체현장탐방(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차이와 관련 해서 선호순위는 남 여학생 모두 종합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비율에 있어서 직업체험활동은 여학생(52.1%)이 남학생(44.9%)보다, 진로직업탐색활동은 여학생(21.4%)보다 남학생(28.6%)이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차이 분석과 관련,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선호순위의 차이는 없으나,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직업체험(중학생 51.2%, 고등학생 45.8%)과 진로직업탐색(중학생 27.3%, 고등학생 22.4%)에 있어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선호하며, 대학탐방에 있어서는 고등학생(21.7%)이 중학생(10.7%)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기타 관련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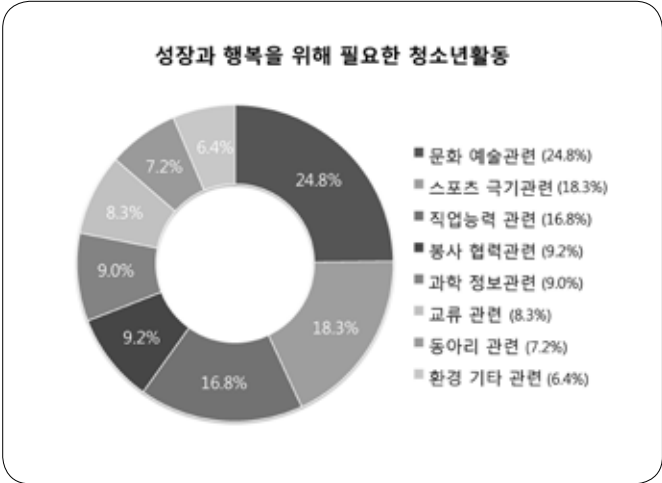
환경·기타 관련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갯벌체험(21.5%)>건강 먹거리 만들기(19.9%)>숲 체험(15.2%)>건강 지키기(10.8%)>성 교육(9.8%)>응급처치(8.6%)>종교활동(5.4%)>조류관찰(3.8%)>약물절제활동(2.2%)>지역 산·하천 지키기(1.9%)의 순으로 나타났다. 5순위 내를 기준으로 볼 때 성별로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갯벌체험(19.2%)>숲 체험(19.2%)>건강 먹거리 만들기(20.2%)>성교육(7.5%)>응급처치(8.7%)의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건강 먹거리 만들기(25.7%)>갯벌체험(23.7%)>건강 지키기(13.2%)>숲 체험(11.4%)>응급처치(8.7%)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순위 내를 기준으로 볼 때 교급별로 선호도의 차이



가 나타났는데, 중학생의 경우에는 갯벌체험(22.6%)>건강 먹거리 만들기(20.2%)>숲 체험(15.4%)>건강 지키기(10.3%)>응급처치(9.0%)의 순으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갯벌체험(20.3%)>건강 먹거리 만들기(19.6%)>성교육(12.3%)>숲 체험(14.9%)>건강 지키기(11.5%)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청소년활동 영역¹¹⁾

청소년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청소년활동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에서는 문화·예술 관련(24.7%)>스포츠극기 관련(18.3%)>직업능력 관련(16.8%)>봉사·협력 관련(9.1%)>과학·정보 관련(9.0%)>교류 관련(8.2%)>동아리 관련(7.2%)>환경 및 기타 관련활동(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남학생의 경우는 스포츠 극기 관련(24.1%)>문화예술관련(21.9%)>직업능력관련(14.0%)>과학정보관련(11.3%)>동아리관련(7.6%)>교류 관련(6.9%)>환경 및 기타 관련활동(6.7%) 순으로 응답하여 문화예술관련(27.5%)>직업능력관련(19.5%)>스포츠극기관련(12.8%)>봉사협력관련(10.5%)>교류관련(9.6%)>동아리관련(7.6%)>과학정보관련(6.9%)>환경 및 기타 관련활동(6.1%) 순으로 응답한 여학생과는 순위와 비율 면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성차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결과로 보여 진다.



□ 청소년활동의 목적¹²⁾

청소년활동의 목적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내 삶의 흥미로운 생활(4.04)>진로발견, 직업능력개발(3.83)>진학과 취업에 도움(3.72)>또래집단과의 관계성 유지 개발(3.72)>사회생활의 능력과 기술습득(3.68)>학교공부에 도움(3.1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남학생의 경우에는 내 삶의 흥미로운 생활(4.03)>진로발견, 직업능력개발(3.76)>또래집단과

11) 백분율 및 전체는 응답 기준

12) 5점 만점. 5점에 가까울수록 청소년활동 목적의 중요도가 높음

의 관계성 유지 개발(3.70)>사회생활의 능력과 기술습득(3.68)>진학과 취업에 도움(3.64)>학교공부에 도움(3.06)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내 삶의 흥미로운 생활(4.05)>진로발견, 직업능력개발(3.90)>진학과 취업에 도움(3.79)>또래집단과의 관계성 유지 개발(3.73)>사회생활의 능력과 기술습득(3.67)>학교공부에 도움(3.13)으로 응답하였다. 1순위와 2순위는 성별차이가 없으나 3순위 이하의 순위와 비율은 성차를 보였는데, 특별히 또래집단과의 관계성 유지개발에서는 남학생이, 진학과 취업 목적에서는 여학생이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볼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목적 순위와 비율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중학생은 사회생활의 능력과 기술습득을 4순위(3.63)으로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진학과 취업을 4순위(3.77)로 응답하여 교급의 과업과 특성에 따른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설문결과는 두가지 함축적 의미를 지니는데 첫 번째는 청소년활동 목적이 학업을 보조하거나 교육제도를 보완하는 형태의 종속적 양태로 가서는 청소년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청소년활동의 최대 목적은 청소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는데 있다.

5. 가치관 조사 분석 결과

□ 삶의 중요도¹³⁾

삶의 여러 구성요소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서 가정(4.72)>건강(4.65)>직업(4.55)>진학(4.51)>동성친구(4.50)>돈(4.30)>여가생활(4.29)>학교생활(4.20)>권력(3.88)>이성친구(3.65)>이웃(지역사회)(3.62)>종교(2.7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3순위 내 남학생과 여학생의 삶의 중요도는 전체 평균 순위와 일치 하였으나 4순위 이후에서는 순위와 비율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4순위에서 6순위를 놓고 볼 때, 남학생의 경우 진학(4순위, 4.47)>동성친구(5순위, 4.44)>여가생활(6순위, 4.31)과 돈(6순위, 4.31)로, 여학생의 경우 동성친구(4순위, 4.56)>진학(5순위, 4.55)>여가생활(6순위, 4.28)로 나타나서 남학생은 진학을 여학생은 동성 친구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볼 때 3순위 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삶의 중요도는 전체 평균 순위와 일치하였으나 4순위 이후에서는 순위와 비율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4순위에서 6순위를 놓고 볼 때, 중학생의 경우 동성친구(4순위, 4.46), 진학(4순위, 4.46)>돈(5순위, 4.270)>여가생활(6순위, 4.26)로, 고등학생의 경우 진학(4순위, 4.57)>동성친구(5순위, 4.55)>여가생활(6순위, 4.33)로 나타나서 중학생은 동성친구를 고등학생은 진학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5점 만점. 5점에 가까울수록 중요도가 높음

□ 삶의 행복지수, 청소년활동 여건지수¹⁴⁾

충남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삶의 행복지수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서 평균 3.60 포인트로 보통 이상의 대체로 만족한다는결과가 도출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행복지수(3.65)가 여학생(3.54)보다 0.1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역의 청소년활동여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서 평균 2.44 포인트가 도출되어서 보통이하의 만족도가 도출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만족지수(2.56)가 여학생(2.32)보다 2.4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3. 삶의 행복지수, 청소년활동 여건지수>

구 분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활동 여건은 아주 좋다
전 체		3.60	2.44
성 별	남자	3.65	2.56
	여자	3.54	2.32
교 급	중학교	남자	2.77
		여자	2.47
		전체	2.62
	고등학교	남자	2.32
		여자	2.16
		전체	2.23

14) 5점 만점. 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고 생각

IV. 시·군별 조사 결과 분석

1. 천안시

- 천안시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PC방과 노래방임.
- 삶의 행복지수인 3.60(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44(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2.93(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39(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5.38%(충남 11.85%)로 매우 낮음.

2. 공주시

- 공주시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PC방과 노래방임.
- 삶의 행복지수인 3.64(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63(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2.99(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44(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11.78%(충남 11.85%)로 보통.

3. 보령시

- 보령시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래방과 PC방임.
- 삶의 행복지수인 3.70(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60(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2.93(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39(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25.37%(충남 11.85%)로 무척 높음.

4. 아산시

- 아산시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PC방과 노래방임.
- 삶의 행복지수인 3.68(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53(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2.91(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40(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10.95%(충남 11.85%)로 보통.

5. 서산시

- 서산시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PC방과 노래방임.
- 삶 행복지수인 3.60(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45(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2.89(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27(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9.30%(충남 11.85%)로 낮은 편임.

6. 논산시

- 논산시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PC방과 노래방임.
- 삶 행복지수인 3.57(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36(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3.04(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42(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6.95%(충남 11.85%)로 낮은 편임.

7. 계룡시

- 계룡시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래방과 PC방임.
- 삶 행복지수인 3.63(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38(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2.98(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46(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2.67%(충남 11.85%)로 매우 낮음.

8. 금산군

- 금산군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래방과 PC방임.
- 삶 행복지수인 3.66(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33(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2.96(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52(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20.47%(충남 11.85%)로 무척 높음.

9. 연기군

- 연기군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래방과 PC방임.
- 삶의 행복지수인 3.56(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52(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2.92(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44(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8.06%(충남 11.85%)로 낮은 편임.

10. 부여군

- 부여군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래방과 PC방임.
- 삶의 행복지수인 3.66(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35(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3.01(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40(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21.50%(충남 11.85%)로 무척 높음.

11. 서천군

- 서천군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래방과 PC방임.
- 삶의 행복지수인 3.48(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06(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2.89(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49(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9.62%(충남 11.85%)로 낮은 편임.

12. 청양군

- 청양군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래방과 PC방임.
- 삶의 행복지수인 3.54(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27(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2.87(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34(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10.43%(충남 11.85%)로 낮은 편임.

13. 흥성군

- 흥성군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래방과 PC방임.
- 삶 행복지수인 3.50(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20(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2.98(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34(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26.07%(충남 11.85%)로 무척 높음.

14. 예산군

- 예산군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래방과 PC방임.
- 삶 행복지수인 3.61(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51(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2.88(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31(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6.11%(충남 11.85%)로 낮은 편임.

15. 태안군

- 태안군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래방과 PC방임.
- 삶 행복지수인 3.57(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27(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2.95(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48(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7.49%(충남 11.85%)로 낮은 편임.

16. 당진군

- 당진군 청소년은 집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의 여가활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래방과 PC방임.
- 삶 행복지수인 3.30(충남 3.60)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여건 2.38(충남 2.44)이 낮음.
- 여가시간 2.94(충남 2.94)에 비하여 청소년활동 3.41(충남 3.40) 만족도가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14.95%(충남 11.85%)로 높은 편임.

2010 충청남도청소년활동요구조사 연구위원

박철웅	책임 연구위원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전공 교수	연구 총괄 및 설문지 개발, 조사결과 분석
한도희	연구위원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역량개발과 전문위원	설문지 개발, 조사 결과 분석
정안철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고객지원부 차장	설문지개발, 코딩 분석 시·군 조사결과 분석
김병갑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설문지 개발, 시·군 조사결과 분석
원훈희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 국장	설문지개발, 시·군 조사 결과분석
문성욱	연구원	재)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활동지원실 지도원	연구위원회 운영 총괄, 설문지 개발, 코딩, 보고서발간



재 단 인 |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 활동지원실
CHUNG-NAM YOUTH DEVELOPMENT CENTER

331-96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90번지 진암빌딩 4층
대표전화 : 041)554-2000(내선3) 홈페이지 : <http://cnyouth.or.kr>